

# ‘계속되는 연기’ 4월인데도 기약 없는 한·미·일 프로야구

KBO, 연습경기 2주 미루고 정규시즌 개막도 5월 초로 연기

5월 중순이후 늦춰진다면 팀 당 최대 135경기~최소 108경기

4월이 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고 있다. 봄이 왔음을 알려 주던 한·미·일 프로야구 개막도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기약이 없는 상태다.

KBO는 지난 달 31일 긴급 실행위원회(단장 모임)를 열고 7일 시작할 예정이던 연습경기를 2주 미루고, 정규시즌 개막도 4월말 또는 5월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KBO리그는 코로나19로 시범경기를 취소하고 시즌 개막 일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뒤로 미루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했지만 이제는 시즌 축소 운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5월 중순 이후로 개막이 늦춰진다면 팀 당 최대 135경기에서 최소 108경기

로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KBO는 포스트시즌 축소 운영, 무관중으로 리그를 시작해 관중 수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국내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초·중·고교 개학도 연기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해 경기 진행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KBO의 판단이다.

그나마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KBO리그는 상황이 낫다. 각 팀은 자체적으로 청백전을 치르며 실천 감각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부 구단의 청백전이 중계되면서 야구를 기다려온 팬들의 아쉬움도 달래주고 있다.

도쿄올림픽 연기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일본도 프로야구 개막이 5월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 프로야구는 최근 후지나미 신타로 등 한신 타이거스 소속 선수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무관중 연습경기를 진행해 왔기에 이를 놓고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데일리스포츠는 1일 퍼시픽리그 6개 구단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리그 개막이 어렵다고 판단, 5월로 개막을 미루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은 오는 3일 회의를 갖고 개막 연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이미 개막이 5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3월 중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8주간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자체를 권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월 중순 이후로 개막을 늦춘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런 분위기에 행사 자체를 권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월 중순 이후로 개막을 늦춘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예상도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메이저리그의 무관중 경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로스터 확대, 시즌 축소 운영, 무승부 또는 승부차기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K리그 온라인 소통...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자택 공개

온라인 이벤트와 SNS 등을 통해 팬서비스 이어나가



코로나19 여파로 축구 경기가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선수들은 온라인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은 KFA가 진행하고 있는 ‘당분간 안에서 만나요’ 팬미팅 장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럽 빅리그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들의 축구리그가 중단된 상태다. 전쟁 이상의 재앙이 휩쓸고 있으니 축구가 곧 삶인 유럽도 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축구를 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다.

독한 보드카와 러시아식 사우나를 즐기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황당할 리더십 아래에 있는 벨라루스는 아직 프로리그를 강행 중이다. 영국 BBC는 “벨라루스축구연맹이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 10개국과 자국리그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기막힌 투수를 누르고 있는 셈이다.

‘역시 유럽은 축구를 사랑해’라며 박수 보낼 일은 아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벨라루스만 주변 국가들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명치야 마땅하다. 축구도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 시 될 수는 없다.

그만큼 목마른 상황이라는 것은 맞다. 국내 팬들 역시 마찬가지다. K리그도 국가대표 경기도 전부 사파졌으니 축구 팬들 입장에서 추운 봄이다. 그래도 다

행스러운 것은 다른 형태로나마 약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장에서 진짜 뛰는 모습을 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선수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한 달 이상 리그 개막도 하지 못하고 있는 K리그는 프로연맹 차원에서, 또 특별로 온라인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연맹은 축구 게임을 활용해 ‘팬선 개막전’ ‘팬선 토너먼트’ 등을 진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바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것(온라인 콘텐츠)이 궁극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럽들도 필드와 관중석이 아닌 온라인 공간을 통해 팬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 선수들이 직접 팬들과 화상 통화를 진행하는 등 라이브 방송들이 인기다.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는 전력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면서도 자체 청백전을 중계방송하기도 했다. A매치를 비롯한 국가대표 이벤트가 중단된 대한축구협회 역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KFA는 지난달 말부터 영상통화 팬미팅 ‘당분간 안에서 만나요’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부를 묻는 영상통화 이벤트로, KFA 공식 SNS를 통

해 모든 팬들의 질문을 KFA 직원들이 영상통화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없는 팬들의 근황을 웃음과 함께 접할 수 있어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고향 포르투갈에 머물고 있는 파울루 벤투 A대표팀 감독은 팬들의 부탁에 자택을 전격 공개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황희찬은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 중인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 밖에 백승호, 이재성, 권창훈, 지소연, 장승기 등 남녀 유럽파들이 진출한 매력을 선보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선수들의 영상통화가 이어질 계획이다.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SNS나 구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영국에서 돌아와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다양한 홈트레이닝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사진들과 줄넘기 동영상 등 집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양손을 사용해 무리 없이 줄넘기 하는 영상도 올려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된 상황도 알렸다. ‘Stay Safe(안전하게 머물자)’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프랑스 2부리그 트루와의 석현준은 구단 SNS를 통한 영상 메시지로 병세가 나아졌다고 알렸다. 석현준은 “지금 상태는 좋다. 거의 다 회복했다. 축구와 우리 팀, 경기와 팬들이 모두 그림이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에 머물러야 한다.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보르도의 황의조도 같은 날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대한 집에 머물러야 하고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최전방에서 힘써주고 있는 의료진에 특히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세계1위’ 고진영 “17년 골프 인생에서 가장 긴 휴식 중”

박성현 “코스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솔레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중단됐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고진영은 1일(한국시간) AP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17년 간 골프를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경쟁 없이 긴 휴식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중순 아시아 스윙 대회에서 시즌을 시작하려고 했던 고진영의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틀어졌다.

코로나19로 태국, 싱가포르, 중국서 열릴 예정이었던 LPGA투어 아시아 스윙 대회가 모두 취소됐다. 실상사상으로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결국 고진영은 지난달 한국으로 귀국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11월 CME그립 투어 챔피언십을 치른 뒤 아직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고진영은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지만 고진영은 국내서 담금질에 한창이다. 그는 “봄철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다”며 “활짝 핀 벚꽃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몸을 만들며 LPGA투어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에 4일은 오전에 하루 2시간씩 체력 훈련을 한다. 골프 연습은 매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잠깐씩 낮잠을 자는 여유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랭킹 3위 박성현(27·솔레이)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직 올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박성현은 AP통신을 통해 “코스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담담함 속에서도 박성현은 묵묵히 팔 휘둘러 훈련하고 있다.

그는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그저 기다리면서 착실하게 훈련을 하며 투어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 4년차 이유찬-3년차 김민규, ‘2020 두산 화수분’ 대표 주자



두산 베어스 4년차 내야수 이유찬(왼쪽)과 3년차 우완 김민규가 연습경기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두산 베어스 제공)

2020년에도 두산 베어스의 화수분 야구는 계속된다. 타자 이유찬(22), 투수 김민규(21)가 대표주자다.

이유찬과 김민규는 실전 훈련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비주전급 선수 중 성적이 가장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야구 개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둘은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유찬은 천안북일고 출신으로 2017년 2차 5라운드(전체 50순위)

지명을 받고 두산에 입단한 4년차 우투우타 내야수다. 1군에서는 2018년 28경기, 지난해 25경기를 소화하며 경험을 쌓았다. 주로 대수비, 대주자로 출전했으며 지난해 도루 6개를 기록하며 빠른발을 인정받았다.

김민규는 휘문고를 졸업한 선수로 2018년 2차 3라운드(전체 30순위)로 두산에 입단했다. 우완 정통파로 2018년과 지난해 딱 한 경기씩 1군 마운드에 올랐다. 올해 프로 3년차가 되지만 아직 경험은 일

전하다고 볼 수 있다.

두산은 호주 대표팀, 일본 프로야구단 등과 5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자체 청백전은 캠프에서 2차례, 귀국 후 7차례를 실시했다.

이유찬은 14차례 연습경기에도 모두 출전해 팀 내 가장 많은 12안타를 때려냈다. 타율도 0.324로 높다. 볼넷 2개를 얻어내는 동안 삼진을 11개나 당해 아직 선구안에 약점을 드러냈지만 공수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규는 9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64(11이닝 2자책)를 기록 중이다. 최고 구속도 145km까지 나왔다. 김태형 감독은 김민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연습경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찬과 김민규. 이대 로라면 개막 엔트리 포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유찬은 대주자, 대수비로 활용폭이 넓다. 김민규는 당장 불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다. 이유찬과 김민규의 성장세를 지켜보는 것이 두산 팬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전망이다.